



정교회 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신현 축일 다음 주일

성 폴리에프크토스 순교자
성 에프스트라티오스 수도자
(제4조 1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 제2응송(안티폰) ----- p.155
- 제4조 부활 찬양송 ----- p.82
- 주일 입당송 ----- p.14
- 신현축일 찬양송 ----- p.155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기송 ----- p.155
- 사도경 : 에페소 4:7~13 --- p.15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 p.158
- 신현축일 성모송 ----- p.157
- 신현축일 영성체성혈송 --- p.157
- 폐식기도 ----- p.15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2022년 새해 메시지

주 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직후 우리는 새로운 해의 시작을 경축합니
다. 매년 새해의 첫날은 무엇보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해를 한 번 더 선사해 주신 주님의 관대한
선물에 대해 자애로우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새해 첫날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
체로서 올 한해 영적으로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특정
한 목표를 세우기에 적합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영향으로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습
니다. 많은 문제들, 이를 테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
제, 경제적 위기, 주변 사람들을 잃은 슬픔과 우울증 등
은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겪는 여러 고통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2면으로 계속)

“모두 함께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 이웃을 위한
선한 일과 정신적 육체적 지원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1면에서 계속)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각자도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관찰자로 남아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해 주시고 악마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신”(사도행전 10:38) 자애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자선 사업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기도뿐 아니라 실천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슬프고 절망적인 이들에게 위로와 주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지원해주는, 우리 주변인들의 “이웃”이 되도록 합시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작가는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때 하느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하신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히브리 13:16)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가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십니다. “신자에게,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은 없습니다.”(겸손에 대해, 설교 8, 30:288)

자선활동 또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타적인 자원봉사는 빛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

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되길 원하시는 빛 말입니다. (마태오 5:14) 이타적인 자원봉사가 빛과 같은 이유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빛의 근원이시며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자원봉사는 우리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마태오 5:16)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것들과 말에만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서 축복으로 베풀어주신 이 새로운 해에 개인적 차원으로든 또 모두 함께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 이웃을 위한 선한 일과 정신적 육체적 지원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 물질적 도움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합시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형제에게 하느님의 현존의 “조용하고 여린 소리”(열왕기상 19:12)가 됩시다.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다.”(II고린토 13:11)라는 말씀에 확신을 가집니다.

피시디아의 소티리오스 대주교님과 모든 성직자들과 협력자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온 세상에 축복되고 기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큰 사랑의 마음으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대주교

정교인으로서 새해에 하는 결심들

아타나시아 봉사자

다 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생활 속에서 우리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래의 것들을 매일 매일 실천한다면 우린 하느님의 도구로서 사랑의 빛을 우리 주위의 세상에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1. 매일 기도하기. 기도의 규칙을 세우고 날마다 실천하십시오. 기도는 하느님과 연결되게 해주며,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세요. 단 한 시간도 그분 없이 흘러가지 않게 하세요.
2. 날마다 그대의 정신을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필립비 4:8)로 채우도록 애쓰십시오. 달리 말하면 날마다 성경과 다른 영적인 글을 읽는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가지십시오. 읽은 것을 명상하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힘쓰십시오.
3.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세요. 먼저는 하느님께,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비록 힘들었던 날일지라도 잠시 숨을 고르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4. 매일 어떤 화나 분노도 하느님께 맡기도록 하세요. 하루가 씩씩한 기분 가운데 끝나지 않게 하세요. 곧, 매일 용서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먼저 당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당신 마음을 상하게 한 누구일지라도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5. 시기, 질투, 탐욕 따위가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6.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당신도 어떻게 다른 이들을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이를 섬기고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7. 웃음을 잃지 말고, 만나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도록 하십시오.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에페소 4:29)
8. 삶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음을, 그리고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낫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궁극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할지 우리의 관점이 더 의미있게 변할 것입니다.

포지 사진 설명



시나이산과 성 카테리나 수도원

시나이 호렘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거룩한 산이다. 330년, 엘레니 모후는 불붙는 떨기나무가 있던 장소에 성모님께 바치는 성당을 지었고, 200년 후에는 유스티니아노스 황제에 의해 수도원이 건립되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205년 순교했던 성 카테리나의 성해(聖骸)가 신비롭게도 시나이산 정상으로 옮겨졌다. 3세기가 지난 후, 수도사들에 의해 발견된 성해는 수도원의 성당 제단에 안치되었고, 그때부터 성 카테리나 수도원으로 불렸다. 수도원에는 3,000점 이상의 고대 성서 필사본과 약 2,000점의 성화가 소장되어 있다.

신앙 탐구



분향

"나의 기도 분향으로 받아 주시고 치켜든 손 저녁의 제물로 받아 주소서."

(시편 141:2 / 만과에서 부른다)

정교회 성당에서는 향기로운 내음이 납니다. 대부분의 예배에서 분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분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이며 간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집전자들은 거룩한 제단에서 시작하여 성상들, 신자들 그리고 성당 내부에 분향합니다.

향은 향로에서 타는데 향로가 흔들릴 때마다 향기를 내보냅니다.

향로에는 숯이 있고 이 위에 약간의 향을 놓습니다.

나무 혹은 식물의 향을 간직한 천연수지가 녹으면서 향긋한 향기를 만듭니다.

소식

대교구

■ 대교구 의회 공고

2022년 1월 23일(주일) 성찬예배 후, 오후 2시부터 제18회 대교구 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각 성당 의회 구성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한국 정교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줌으로 개최합니다.

■ 신자 총회 공고

각 성당의 2022회계년도 정기 신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의 결산과 새해 예산, 영적 사업과 주요 현안 등의 안건이 심의됩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례신자들은 꼭 참석하셔서 교회 발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9일 (주일) - 부산, 전주, 울산 성당

" 1월 16일 (주일) - 서울, 인천, 춘천 성당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방문

지난 1월 2일(주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요한 박인곤 보제가 인천 성 바울로 성당을 방문하여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와 함께 주일조과 및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하느님의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해주셨습니다. 또한 성찬예배 후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새해맞이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 세례와 견진, 결혼 성사를 축하합니다.

지난 1월 2일(주일), 박지혜 앙젤리끼 교우는 세례 및 견진성사로 정교인이 되었으며, 이어서 거행된 결혼성사를 통해 그리스인 Epstratios Roussounelos 교우와 (종인 Antonios Manos 교우)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집전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와 Christopher Moore 신부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올바른 정교인의 삶을,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